



무주경찰서, 산불 진화 공로 민간인 5명 감사장 전달

무주경찰서(서장 박충근)는 전북 무주군 부남면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에 공로가 있는 대소마을 이장 강진석 등 5명에 대해 9일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날 무주경찰서장은 감사장 전달에 앞서 3개 대소·울소·새목마을의 고령자를 포함한 마을주민 136명의 대피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에 감사함을 전했다.

특히, 부남면 대소마을 주민 유상돈, 유영보 주민께서는 경찰서장을 도와 산불 진행 경로, 풍향의 변화 등에 대해 조언해 대형산불 확산 방지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장 수령자 강진석은 “끝으로 경찰서장은 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굳건히 수호하는 무주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 뿐인데 감사장을 받게 되어 더욱 기쁘고, 향후 더욱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겠다”며 화답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제경찰서장, 지역 경찰관들과 소통의 장 마련

김제경찰서(서장 박승준)는 지난 8일 관내 치안 중심지인 월촌지구대를 시작으로 12개 지구대와 파출소를 방문, 치안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경찰관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번 방문을 통하여 각 지역경찰관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범죄예방 활동과 우수 사례 등을 보고 받고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경찰이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공동체 치안’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는 박승준 김제경찰서장은 “늘 시민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주민의 곁에서 눈높이에 맞는 경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청하면 복지기동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봉사

김제시 청하면 행정복지센터는 복지기동대가 9일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하이샷시 설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낡고 훼손된 임시 비닐막을 하이샷시 단열로 새롭게 교체하는 것은 물론, 쓰레기 배출·대청소까지 함께 진행해 대상자가 보다 깨끗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기울였다.

이병연 복지기동대장은 “지역의 재능 있는 대원들이 힘을 모아 봉사하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며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기동대는 14명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돼 있으며,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샷시·판넬 단열 시공, 도배·장판 교체, 안전손잡이 설치 등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나눔 문화 확산 기여한 주요기업에 ‘감사’ 전해

익산시 ·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업 9곳에 감사패 · 사랑의열매 기념품 전달

익산시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주요 기부기업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시는 9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2024연중모금’과 ‘희망2025나눔캠페인’에 적극 참여한 주요 기부기업을 대상으로 감사패와 기념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달식은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표하고, 지역 내 나눔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희 익산시 복지교육국장과 한명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을 비롯해 수상 기업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에 수상하는 9개 기업 중 이날 전달식에는 △(주)아론산업 △(주)우신피그먼트 익산지점 △(주)이삭농산 △원광새마을금고 △에이치엘만도(주) 5개 기업이 참석했다.

김영희 국장은 “여러 기업의 따뜻한 나눔 덕분에 지역사회 안전망이 더욱 단단해지고 있다”며 “기부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는 9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2024연중모금’과 ‘희망2025나눔캠페인’에 적극 참여한 주요 기부기업을 대상으로 감사패와 기념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한명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희망2025나눔캠페인에 큰 힘을 보태주신 모든 기부자와, 늘 함께해주는 익산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는 희망2025나눔캠페인 기간 동안 모금된 일반 성금이 전년 대비 145.8% 증가해 전북도 내 ‘우수시군’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익산=이재춘 기자

무주반딧불복지농장, 청정축산 환경대상 ‘최우수상’ 수상

전북 무주의 무주반딧불복지농장이 ‘청정축산 환경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농협전북본부는 9일 서울시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제7회 청정축산 환경대상’ 시상식에서 무진장축협 무주반딧불복지농장(대표 김순자)이 최우수상(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청정축산 환경대상은 전국 축산농가 중 축사환경, 냄새저감, 동물복지, 분뇨관리, 사회공헌 등의 평가항목을 통해 환경개선 우수농가를 발굴·홍보하여 축산 환경개선 의식을 고취하고 우수농가에 대한 포상과 격려를 통한 자긍심 고취 및 인식 개선을 위해 매년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나눔축산운동본부 후원으로 2018년부터 농협 경제지주 주최로 매년 진행되고 있다.

이날 수상한 무주반딧불복지농장은 전북 동물복지농장 1호 인증농장으로 닭을 가두지 않고 비교적 넓은 공간에 방목시키며 농약성분이 들어간 살충제를 쓰지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농장 바다도 부엌토와 흙을 깔아 자연적인 모래목을 시키는 등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축사환경, 냄새저감, 분뇨처리, 동물복지 등에 대한 현장 평가와 심사를 통해 최우



소 농장으로 선정됐다.

이정환 본부장은 “깨끗한 농장관리로 최우수 농장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린다”며, “축산환경개선 우수농가 발굴과 홍보강화로 청정축산을 실천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고창소방서,전통시장서 ‘안전하기 좋은 날’ 캠페인

고창소방서는 9일 고창전통시장에서 ‘안전하기 좋은 날’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을 ‘안전하기 좋은 날’로 정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화재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고창소방서를 비롯해 고창의용소방대연합회가 함께 참여해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안내 △119신고 요령 안내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시장 상인 대상 소방안전 컨설팅 등을 실시했다.

박성희 고창여성의용소방대장은 “전통시장은 다중이용하는 장소인 만큼화재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민들과 함께 안전한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참여하겠다”이라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새마을회, 식목일 맞아 소나무 500주 식재

정읍시새마을회(회장 이경연)가 제80회 식목일을 맞아 교암동 구암마을 인근에 소나무 500그루를 식재하며 환경보호와 탄소중립 실천에 나섰다.

9일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경연 회장을 비롯해 박찬성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최금순 새마을부녀회장, 김영현 새마을문고회장 등 주요 임원과 새마을회원 50여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산림청의 후원을 받아 마련된 소나무 묘목을 정성스럽게 심으며 지지대 설치와 물주기 작업에도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활동은 생태계 회복과 지역 산림의 건강성 회복에 의미 있는 기여를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 백구면 지사협, 취약계층 방충망 지원사업

김제시 백구면 행정복지센터는 9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강인), 복지기동대(대장 유종환), 맞춤형복지팀이 취약계층의 노후 방충망 교체 지원사업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기동대, 마을이장이 함께 힘을 합쳐 봉사활동을 진행했으며, 총 42세대 168장의 방충망을 교체했다.

유종환 복지기동대장은 “협의체, 복지기동대, 마을이장이 함께 봉사하며 더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받게 되었다”며, “바쁜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해주신 봉사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